

# 눈앞에 펼쳐지는 '사이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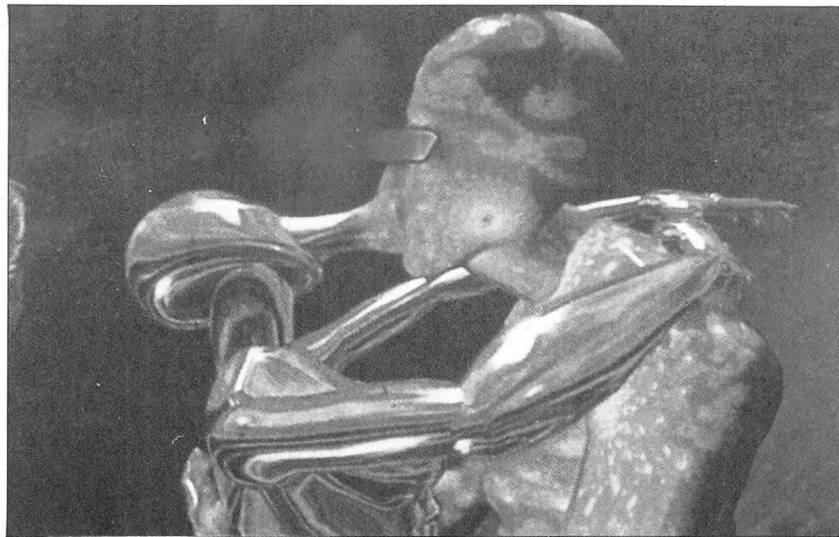
## 가상현실의 가능성 타진한 책들 쏟아져... 긍·부정적 전망 엇갈려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영역'을 의미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전에도 없는 문학용어다. 1984년 미국의 SF작가 윌리엄 김슨의 작품인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 용어는 문학에서 생겨나 경영·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경영·경제 신간 코너에 무수히 나와 있는 《사이버...》류의 책들은 문학이 보여준 가상 현실 혹은 가상공간의 가능성을 인터넷에서 발견해 낸다. 이 공간에서는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각종 일들이 벌어진다. 종교인은 설교를 하고 정치인을 공약을 발표하며 기업은 광고를 하고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한다. 언론인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각종 뉴스를 발굴·전달한다. 인터넷을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UN에 등록해야 한다는 거짓말 같은 여론까지 일고 있는 지금, 이들 《사이버...》류의 책들은 사이버 세계가 미래에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있다.

### 사이버의 미래 전망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사이버 비즈니스혁명》은 95년 10월부터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에 연재했던 특집 기획물 '사이버 스페이스 혁명' 가운데 1부에서 5부까지를 재구성한 것. 95년을 기점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환경에 발맞춘 일련



'사이버'를 소재로 한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그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의 변화를 '사이버 스페이스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특히 이 책은 경제분야에서 사이버 세계가 열어줄 가능성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캐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새로운 에이전트, 회사내 정보통신망인 인트라넷,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상점 및 입찰 등은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출판·통신·방송의 기술을 집약한 인터넷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넓게, 더 값싸게 라는 비즈니스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다.

"경제·경영분야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경제성 때문이

다.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가 반드시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콤 천리안의 사업담당 부장으로 최근 《사이버스페이스 전쟁》을 번역한 김인환씨의 말이다. 앞서의 책과는 달리 사이버 혁명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주의를 기울인 《사이버페이스 전쟁》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실제현실(Real Life)을 위협하게 될 불안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사이버 소사이어티의 도래

저자 마크 슬로카(캘리포니아대 문학강사)는 알기 쉬운 예들을 이용해서 사이버 세계가 가져올 폐해들을 꼬집는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공간, 관계로 얽혀 있는 공동체와 실제 현실이 사이버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라고 본다.

가상현실이 실재를 대신하면서 사랑이나 연민, 이해, 공감 등의 감정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전망은 설마 하는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아주 황당한 말도 아니다. 또 그물망처럼 얽힌 정보망 안에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무가치한 개체로 전락하고 말리라는 게 슬로카의 전망이다. 가상현실에서 있을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가상·실제 구분없이 일어난다면 도덕질서나 기존 가치관은 건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다.

이 두 책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이버 트랜드》는 사이버 혁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

과 비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교차한다. 이 책은 먼저 사이버 스페이스의 탄생 과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정보화 추진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의 현황을 살핀다. 1969년 핵 공격에 대비,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아르파넷(ARPANET)에서 시작된 인터넷이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모한 사실을 들어 사이버 세계의 자기 정화능력을 보여 주거나, 사이버 혁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도 한다.

사이버 시대를 실감케 하는 것은 이런 경제·경영서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심리학에도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사이버 베아트릭체》를 선보인 바 있는 김영사는 MIT 학장인 윌리엄 미첼의 《비트의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건축학적 시각에서 미래도시의 조감도를 그려낸 이 책은 소설적 요소와 건축학, 사이버 과학이 절묘하게 만난 책이 되리라는 것이 기획자의 설명이다.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세계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이버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김영사 편집부 강병국씨의 말이다. 인간 고유의 것으로 여겨지던 심리학에서도 사이버 세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이미 87년에 출간된 현암사의 《사이버네틱스》는 기계장치와 물리적 원리를 연구하기 위한 사이버네틱스를 인간의 심리에 적용한 심리학 책이다.

사이버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는 문학이 일찍이다. 《사이버펄크》(마이클 로저스, 백양) 같은 번역소설의 소개는 물론 최근에는 정통 문학의 사생아 정도로 여겨지던 통신문학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통신에 올리는 글'이 아닌 사이버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적극 소개한 책도 있다. 본격적인 사이버 문학 계간지 《버전 업》의 준비 작업과 함께 토마토 출판사에서는 최근 《사이버문학의 도전》(이용욱 지음)을 펴내 눈길을 끈다.

—이현주 기자

### 〈사이버 관련서 목록〉

책 이름	지은이/옮긴이	펴낸 곳	분야	비고
사이버비즈니스 혁명	일본경제신문사 엮음	한국무역협회	경제	기출간
사이버스페이스 전쟁	마크 슬로카/김인환	한국경제신문사	사회	"
사이버 트렌드	김영한 지음	고려원미디어	사회	"
사이버 베아트릭체	허만형 지음	김영사	국내소설	"
사이버네틱스	맥스웰 말츠/이정자	현암사	심리학	"
사이버 펄크	마이클 로저스/정선화	백양	외국소설	"
사이버 스페이스	요한나 뷔/김찬규	이 두	과학	"
사이버 제국	편집부	소프트라인	정보과학	"
사이버 워		소프트라인	CD롬	"
사이버 문학의 도전	이용욱 지음	토마토	문학이론	"
버전 업		토마토	문학계간지	출간예정
비트의 도시	윌리엄 미첼 지음	김영사	사회	"
제목 미정	강태진 지음	명진출판사	국내소설	"